

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의회 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25년3월20일(목) 오후 3시 30분

의사일정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9175)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8)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5)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7)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1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6)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8.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9)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91)
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21.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상정된 안건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9175)	3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3)	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3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8)	4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4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5)	4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6
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6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7)	6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6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6
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6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9
1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9
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9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6)	9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9
18.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9)	9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91)	11
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19
21.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19
○ 5분자유발언	26
- 5분자유발언 의원(김재원)	26

(16시09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대응 및 헌법질서 수호·내란종식을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니다.

정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매우 큼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한 채 각종 추측과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한 상황이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의 지속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기관입니다. 불확실한 선고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정은 현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 예측과 정보의 범람이 현재에 대한 불신과 선고 후 혼란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차분히 현재의 결정을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9175)

(16시1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16시1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송석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은 첫째, 본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며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제안하고 심사했으니까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아주 깎듯하시군요.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5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8)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5)

(16시1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건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김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위탁 및 국제개발협력 공로자에 대한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意的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 여행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에 의원, 박충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 지원 외에 영어·영립 정착 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7)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6시2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계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조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보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장애 관광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보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대림·최보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해 근현대문화유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운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조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1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1인, 반대 8인, 기권 17인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8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1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6)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8.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9)
- (16시2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배현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악과 인쇄, 출판 관련업의 폐업신고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김윤덕·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우리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불필요한 게임산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지방소멸과 지역관광 부진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웰니스 산업의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자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법안입니다. 부처 간의 격벽을 넘어서 전국의 관광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여야 모두의 노력이 담긴 법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배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4인 중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8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0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0인, 기권 25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91)

(16시3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를 이루어 낸 연금개혁법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해 왔고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연금개혁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또 여야 모두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여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50개월로 되어 있는 출산 크레디트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쉬움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그리고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주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들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께서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의 출생아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뒤 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루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 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미래세대에게 가혹한 개악안입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론이고 KDI가 말하는 신규 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연금 고갈을 반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곧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청년·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천하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열두 차례의 특위, 스물여섯 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아홉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 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디트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집이 부서지면 그 안에 담긴 새알은 박살이 나기 마련입니다. 연금제도가 무너지면 소득대체율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개정으로도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안겨 주고 먹튀하면서 이렇게 손을 털 수는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마는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지금까지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연금에서의 큰 진전이라고 보고, 다만 이미 구성된 연금특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문제를 노력해서 미래세대가 손해 보지 않는 그리고 완결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주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 수익은 쪽 빼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풍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제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

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 든든히 보장이 되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공적연금을 더 튼튼하게 강화하는데,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고 노후를 개인 부담으로 떠넘겨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내란의 밤 국회를 엄호했던 국민들에게,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를 외쳤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 줘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빛의 혁명에 함께한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나라에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지 불안한 미래를 그대로 둘 것인지 그 선택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요청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 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고였고 머물렀고 미뤄 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의 저항이 두려웠고 개혁으로 잃어버릴 표가 무서워서 오래 회피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 짓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

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000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의 국회 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내린 이 결단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의 걸음이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날카롭게, 뜨겁게 듣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여전한 불신 역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대책을 얻어 내고자 끝까지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누구든 연금개혁의 내용이, 실질이 향후 미치게 될 공·부정 영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야정의 각기 다른 고민의 온도차를 줄여 보려 몸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타고 나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높은 벽 앞에 멈춰 손안에 초조함만을 쥔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려 18년 만에 다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면피성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조율한 결과도 아닙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화살을 맞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급격히 떨어뜨린 소득대체율만큼 형평성을 제고했고 보장성 강화를 고심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이 당시 처음으로 도입됐던 제도들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내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얹히고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 입에 넣어줄 과일 하나 사는 일에 두 번, 세 번 주저하시던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줄여 드려야 합니다. 손주 주머니에 아들딸 몰래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어 주시게 해 드립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막막한 청년세대에게 내 노후에 기댈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줍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후는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은 교육으로, 교육은 계층으로 그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국민의 노후에 있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동시장도, 우리 아이들 교육도 계층 사다리도 보다 덜 거칠고 덜 가파른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걸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고자 헌신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담당 사무관 한 분께서 과도한 업무 강도에 버티고 버티시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빚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걸음은 민주당 정권이 걸었던 길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걸어갈 길입니다. 국민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노후를 맞으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렇게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원식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국회의장도 이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함께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개혁에 정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권성동·박찬대 양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그리고 수석부대표 정말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야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낸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김미애 간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상으로도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간에는 제도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두 차례에 걸쳐 낮춰 왔는데 처음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렸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수급 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에서 반대 의견으로 제시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21.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17시0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0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용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수사요구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및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요구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범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전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요구안을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꺾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진정으로 민주당은 특검·탄핵 타령만 계속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쫓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

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과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재탕, 삼탕한 내용들이고 재의요구 끝에 부결된 것들입니다. 고무줄 늘리듯 혐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수사요구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민주당의 돈정치부터 타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버젓이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조차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12명으로 쪼개서 불법 후원했는데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사요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요구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의장 우원식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의 거부권, 재의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열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혼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 해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 오빠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외압을 행사하게 된 것도 결국 건희의 힘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품백 수수입니다.

명품백을 건네받은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김건희는 기어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모든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등 국가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일곱 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그램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저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사요구안의 의혹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운반책이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한 거짓말 한마디에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그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 관세청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따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경찰의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마약 밀수책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매우 흔한 수법입니다. 미국 마약단속국과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맹목적으로 마약 운반책의 진술만 믿고 억울한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수십회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관세청 공무원들의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의혹의 실체입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들도 하나하나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경찰서 수사관들이 세관 관련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마약 운반책의 주장 말고는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16개월이나 수사한 경찰관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수사요구안입니다. 실제 상황들과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마약 운반책, 공명심에서 정당한 보도원칙 준수 요청을 마치 수사외압이라 주장한 일부 경찰, 이들의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야당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나라 5300여명에 달하는 관세청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까지의 명예와 사기가 짓밟힌 것이 이 사건 의혹의 실체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려 1년이 넘도록 수사를 감내해야 했고 전체 관세청 공무원들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지능형 감시기술 활용,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을 통해 마약 밀수와 관세포탈을 철저히 단속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세계관세기구에서도 우리 세관의 혁신적인 감시 기법을 모범 사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 석워진 의혹의 프레임을 벗겨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마땅한 사안이고 그 일에 우리 국회가 앞장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이들 공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본 수사요구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의혹의 실체는 단순한 보도원칙 준수 요청이었음에도 이를 포장해서 마치 대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객관적인 진실만 바라보시고 이제라도 이 수사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의원님들, 오늘 춘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 봄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광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사건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찬성해 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해룡 경정을 저는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회유했나?」 하는 의원 있음)

회유…… 잘 모르면 들으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전쟁을 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시간여 통화한 백해룡 경정의 음성은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반장이 갑자기 관내 파출소로 좌천된 사람답지 않게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의 말은 진정성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우창저,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름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조직의 두목이자 부두목입니다.

저는 38구경 권총의 무게가 680g 나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8구경 권총을 적어도 네 자루, 다섯 자루를 각자 한 몸에 소지한 채 4명 내지 5명의 운반책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천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장관님, 출입국관리본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5kg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다섯 놈이 안내를 받아 가면서 다른 루트로,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 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영등포경찰서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인천지검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조직을 위청하는 중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입니다.

신준호 차장검사, 김연실 차장검사. 저도 법무부 인사를 해 봤습니다만 마약 강력부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를 이어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입

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초기 입건과 초기 검거에 기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 2명의 마약 강력부장을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주었을까요?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조병노 서울청 경무관, ‘용산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백해룡 경정이 국민을 상대로 국내 마약조직 적발사건 중에 원투로 가는, 무려 183kg 중에 불과 30kg만 압수됐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마약 적발사건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세관 언급을 빼 달라는 이 지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적을 저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백해룡 경정은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거기에 있는 우칭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부두목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 수첩 내용에 딱 보면, 딱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덮어 버렸습니다. 우칭저의 수첩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버렸어요.

이 마약조직의 운반책들이 쓰는 텔레그램과 비슷한 위챗이라는 메신저의 네 놈 중에 한 놈만 검거되고 나머지 세 놈은 서울 명동에 와서, 서울 명동에 와서 대한민국 청소년 390만 명을 투약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히로뽕을 풀고 다시 싱가포르로 토껴 버렸습니다.

(「의장님, 시간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박범계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대형 사기입니다.

(「시간 지키라고, 시간!」 하는 의원 있음)

대형 사기극에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 사기극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의원 마지막으로 백해룡 경정이 조금 전 저에게 해 줬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들어요, 좀.

○의장 우원식 자, 이제 정리하세요.

○박범계 의원 김건희의, 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의장 우원식 자, 이제 정리하십시오.

○박범계 의원 바로 이들이 범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정리 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박범계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5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7시35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재원)

○의장 우원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들으시지요.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0만 명으로 두 달 연속으로 2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한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자영업도 고용도 모두 절벽입니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무역적자국이라며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수출 둔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모두가 알면서도 즉각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한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불법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가 더 지연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3월 폭설보다 더 매서운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의원이 쓰러지고 당원이 목숨을 잃고 지지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이 이러한 비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혼란 속에서도 정신 줄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삭풍이 몰아칠지라도 정부와 국회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우리 국민이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새끼와 형제자매가 굶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시 추경에 나서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고 자영업자 회생과 서민 고용이 유지되도록 신속히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추경 추진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미 전통적인 산업군에서의 수출 호재를 기대하는 것은 미시적이다 못해 얕은 생각입니다. 22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1조 원, 수출액은 132억 불로 이차전지 99.9억 불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수출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산업을 단순한 향유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천한 인식과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지 못한 탓입니다.

국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4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는 되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에는 1.06%를 기록하더니 2025년 예산은 1.0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문화 관련 산업 투자는 이제 국가 수출의 흑자 전환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날의 K-문화산업의 위상을 민간에서 만드는 데 그동안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K-컬처의 성공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K-문화체육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가경제를 지탱할 마지막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 예산의 확보는 이제 단순히 그 분야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외교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 문화강국의 꿈이 단단한 예산 지원 위에 뿌리 내리고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와 손잡고 더 많은 꽃을 오래도록 피워 낼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재원 의원 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1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훈
김성희	김승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춘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1인)

강승규	김소희	김재섭	박대출	박성훈	박정훈	안상훈	이주영	이준석	정성국
진종오									

기권 의원(9인)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준형	서천호	신성범	용혜인	우재준	이철규	
-----	-----	-----	-----	-----	-----	-----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5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정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5인)

곽상언 박지혜 용혜인 이용우 이재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1인)****찬성 의원(26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정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66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운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6인)

강선영	권성동	김민전	김성원	김희정	추경호
-----	-----	-----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73인)****찬성 의원(27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운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고동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3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홍	유효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기권 의원(3인)

이연희 한창민 황정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2인)**찬성 의원(27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용혜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9인)****찬성 의원(26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1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김태년

(권영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7인)****찬성 의원(25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3인)

박성훈 안상훈 최은석

기권 의원(13인)

강선영 고동진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박수영 신동욱 유명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임종득 추경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4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8인)

강대식 권영진 김선교 박성민 박정훈 조승환 조은희 최수진

기권 의원(18인)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김민전 박대출 박수민 배준영 서지영 신동욱 유명하
이달희 이현승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지연 최은석 추경호

(배준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8인)****찬성 의원(25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3인)

박대출 박성훈 신동욱

기권 의원(7인)

고동진 김민전 박준태 서명옥 이달희 정성국 최은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4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승수

기권 의원(8인)

고동진 김미애 김민전 김희정 박대출 정동만 추경호 한기호
(김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4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진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2인)

강민국 김승수

기권 의원(10인)

고동진 김미애 김민진 김소희 김희정 박대출 정동만 최보운 추경호 한기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58인)****찬성 의원(24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진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김승수

기권 의원(11인)

강민국 고동진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김희정 박대출 정동만 최보운 추경호
한기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5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희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기권 의원(9인)

강선영 곽상언 김기웅 김미애 김민전 김선민 김준형 이용우 허성무
 (한지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5인)****찬성 의원(23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선민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10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김선교 김장겸 박성훈 유영하 이종욱 이철규

기권 의원(25인)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종양 박대출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서범수
서지영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이달희 이상휘 이종배 정동만
정희용 최보운 최은석 추경호 한기호**○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5인)****찬성 의원(25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서천호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강선영

기권 의원(5인)

곽상언 김선민 이해민 조승환 최은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7인)

찬성 의원(194인)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상훈	김성환	김성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장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현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희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욱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40인)

강승규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재원	김준형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현진	백선희	성일종	안상훈
용혜인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종오	이성권	이소영	이주영	이준석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성국	정혜경	정희용	조지연	진종오	천하람	추경호	한창민

기권 의원(43인)

강경숙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동아	김민전
김선민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한규	나경원	모경종	민홍철	박성민	박홍배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신장식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해민	장동혁	정연욱	정점식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차규근
최수진	한기호	황운하							

(조정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투표 의원(264인)

찬성 의원(17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	-----	-----	-----	-----	-----	-----	-----	-----	-----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85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염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다른 의원이 착오로 권성동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권성동 의원 기권에서 불참으로 정정)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76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운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기권 의원(4인)

곽상언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	-----	-----	-----

○출석 의원(29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5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산회 시 재석 의원(57인)

강경숙 광상언 권향엽 김 건 김동아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 윤
김재원 모경중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상혁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지혜 박형수 백선희 부승찬 서삼석 서지영 손명수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오 이견태 이기현 이병진 이소영 이용우 이재관
이해민 장종태 전종덕 전진숙 정준호 정춘생 정혜경 조계원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최은석 한창민 허성무 허영 황운하

○청가 의원(3인)

김병주 서왕진 유상범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일부장관 김영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9)

3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7)

이상 2건 3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이상 2건 3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이상 5건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이상 3건 3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이상 2건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3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3)

이상 4건 3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4)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이상 4건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이상 5건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이상 5건 3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0)

3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5)

이상 4건 3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1)

3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0)

3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3. 14.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2)

이상 5건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5)

이상 4건 3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이상 5건 3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7)

이상 4건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3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근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0)

이상 13건 3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이상 3건 3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3)

이상 5건 3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2)

이상 5건 3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7)

이상 4건 3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2025. 3.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2)

이상 6건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이상 7건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이상 2건 3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1)

이상 3건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3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이상 10건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3)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2)

이상 2건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이상 2건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6)

이상 2건 3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이상 2건 3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0)

3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7)

3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1)

3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이상 6건 3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이상 3건 3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4)

3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0)

이상 2건 3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이상 2건 3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이상 14건 3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2)

이상 5건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이상 2건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이상 3건 3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4)

이상 3건 3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1)

이상 4건 3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이상 2건 3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이상 7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9.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9.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5. 3. 1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39)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 3. 20. 의장 제의)(의안번호 22091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2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191)

○의안 심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2025. 2. 21.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8356)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2025. 2. 11. 김용민 의원 외 23인 발의)(의안번호 2208058)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수정하여 의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6.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8. 26.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이상 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2025. 3. 13. 문유현 외 52,1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1)

3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 연봉(임금) 및 활동비 삭감에 관한 청원

(2025. 3. 16. 이병곤 외 51,1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0)

3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3. 14. 손은진 외 51,5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3)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2025. 3. 14. 박찬세 외 51,56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4)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강화에 관한 청원

(2025. 3. 15. 조우진 외 59,27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6)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2025. 3. 15. 최원준 외 53,58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7)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2025. 3. 15. 이승범 외 53,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8)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2025. 3. 16. 김용운 외 52,7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9)

이상 6건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3. 14. 정규준 외 50,1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2)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3. 14. 김진용 외 51,1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5)

3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2025. 3. 18. 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3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2025. 3. 18. 문유현 외 52,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2)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

(2025. 3. 19. 이술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2025. 3. 19. 문유현 외 52,3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4)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구서 제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2025. 3. 14. 정부 제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2025. 3. 18. 정부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준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5. 3. 18.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24년 국민권익백서(비공개)

(2025. 3. 6.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3월 13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

(2025. 3. 14. 한국은행 제출)

3월 18일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5. 3. 18. 보건복지부(부분공개)

2025. 3. 17.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3. 18. 질병관리청

이상 3건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25. 1. 7. 기준

금회소속기관부석

의장

శా
లి

석좌보원무국

이 글자

표음단위	성모	자음	비음	개
ㄱ	160	10	170	108
ㅋ	90	18	108	12
ㆁ	12	12	24	3
ㅏ	1	2	3	1
ㅑ	1	2	3	1
ㅓ	1	2	3	1
ㅕ	1	2	3	1
ㅗ	1	2	3	1
ㅛ	1	2	3	1
ㅜ	1	2	3	1
ㅠ	1	2	3	1
ㅡ	1	2	3	1
ㅟ	1	2	3	1
ㅣ	1	2	3	1
합계	254	46	300	2